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한국에 '불똥'

"보안 문제 발견, 제품 구매 금지"
미·중 '반도체 전쟁' 격화
美 "한국 빈자리 메우지 말라" 요구
수출 감소 속 한국 기업들 곤혹

중국이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다른 기업들로도 이어질 지 세계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중국 조치가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한 '맞불' 조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지토록 했다. 지난 3월 31일 마이크론에 대한 심사 개시를 발표한 지 50여일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블룸버그는 반도체 분야가 국가안보를 둘러싼 미중간 주요 싸움터가 되어왔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기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제재 발표 시기가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내용을 담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이자 G7 정상회의 폐막일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9년 5월 행정명령으로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수출통제명단'에 넣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의 공급망 마비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이 같은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일본, 네덜란드 측과 협의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두 나라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이 미국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와 더불어 지난 10~11일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오스트리아 빈 회동을 계기로 미중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노렸을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압사 사고가 일어난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쿠스카틀란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고 있다. 이날 저녁 축구 팬들이 프로축구 알리안사와 FAS 간 리그 8강 2차전 경기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문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관계에도 도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나온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강 체제를 형성한 마이크론은 작년 매출액 308억 달러(약 40조7000억원) 가운데 16% 이상인 52억 달러(약 6조 8700억원)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렸다. 중국 본토 8매출액만 따지면 전체 매출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얻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외신 보도의 취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발표로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는 부분적으로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외신 보도대로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늘리지 말 것을 실제로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와 재계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한편 21일 발표된 중국의 제재가 마이크론의 주 고객인 민간 전자기기 업계는 일단 피해 갔다는 점에서 마이크론이 입을 타격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엘살바도르 수도서 축구장 압사 사고
12명 숨지고 어린이 등 100여명 부상
입장 과정 관중 몰려 아수라장

중미 엘살바도르의 한 축구장에서 입장을 원하던 축구 팬들이 닫힌 문으로 몰렸다가 넘어지고 깔리면서 최소 12명이 숨졌다.

21일(현지시간) 엘디아리오데오이와 노티시아스데엘살바도르 등 현지 매체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참사는 전날 저녁 프로축구 알리안사와 FAS 간 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열린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쿠스카틀란 경기장에서 발생했다. 이 경기장은 알리안사의 홈구장이다. 지난 17일 1차전에서는 FAS가 1대 0으로 승리했다.

5만3400명 수용 규모의 경기장에 관중이 운집하면서 입장 절차가 더뎌졌는데, 일부 무리가 닫힌 문 쪽으로 갑자기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문이 부서지면서 일대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폭력 사태도 빚어졌다고 엘디아리오데오이는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구조당국은 인파에 깔린 사람 중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00여명은 상처를 입거나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동영상에는 엘살바도르 경찰이 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모습도 찍혔다. 다만, 경찰은 최루가스를 쓴 적 없다고 해명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번 사고로 경기는 중단됐다. 선수들과 팀 코칭 스태프는 질식 징후를 보이는 부상자를 돕거나, 슬픔에 빠진 팬을 위로하기도 했다.

노티시아스데엘살바도르는 "경기장 관계자가 문을 닫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으려 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다. 매표소 QR 리더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 "축구팀과 감독, 매표소와 경기장 관계자, 리그 관계자 등 모든 사람을 상대로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는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 "비극적인 사건에서 희생된 이들과 그 유족, 친구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AFP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그리스 총선 집권당 승리
과반 못미쳐 7월 2차 총선

그리스 단독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ND·이하 신민당)이 21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독 집권 연장을 위한 과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해 7월 초 2차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 AFP, AP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82%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현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은 40.8%를 득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스는 전현직 총리가 격돌한 이번 총선을 통해 4년간 의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의원을 새롭게 선출한다.

신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단독 정부 구성은 어렵게 됐다.

그리스는 1990년 이후 최다 득표한 정당에 50석을 '보너스'로 몰아주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지금까진 득표율이 저조해도 1위를 차지하면 비교적 쉽게 과반을 확보해 집권할 수 있었다. 신민당이 2019년 총선에서 39.85%를 득표하고도 과반인 158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택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이 제도가 폐지됐다. 여론조사업체들은 한 정당이 단독 집권하려면 최소 득표율 45%를 얻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스 내무부는 신민당이 과반 의석(151석)에 6석 부족한 14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신민당은 22일부터 사흘간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거나 이를 포기하고 7월 초 2차 총선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민당이 2차 총선을 통해 단독 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G7서 돌아온 바이든 협상 재개
美 부채한도 상향 돌파구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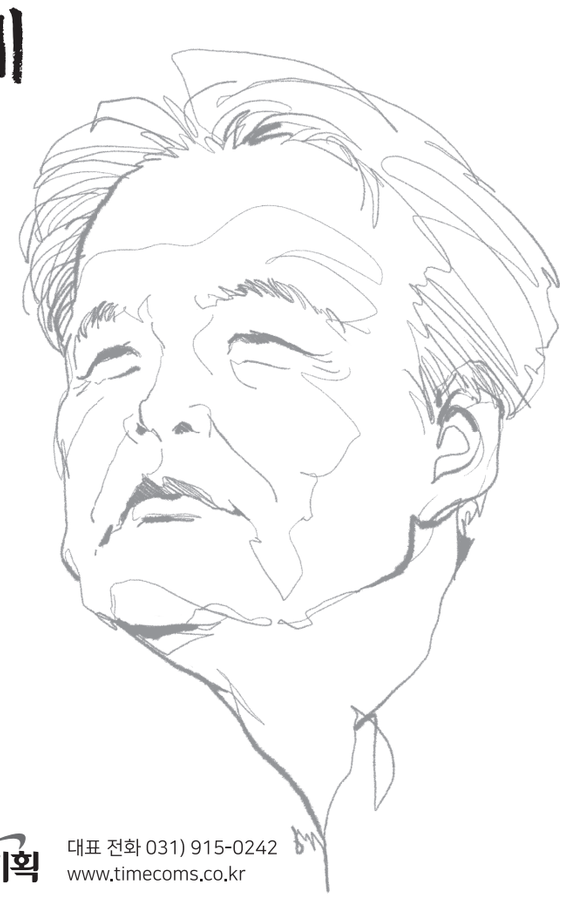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 순방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매카시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부채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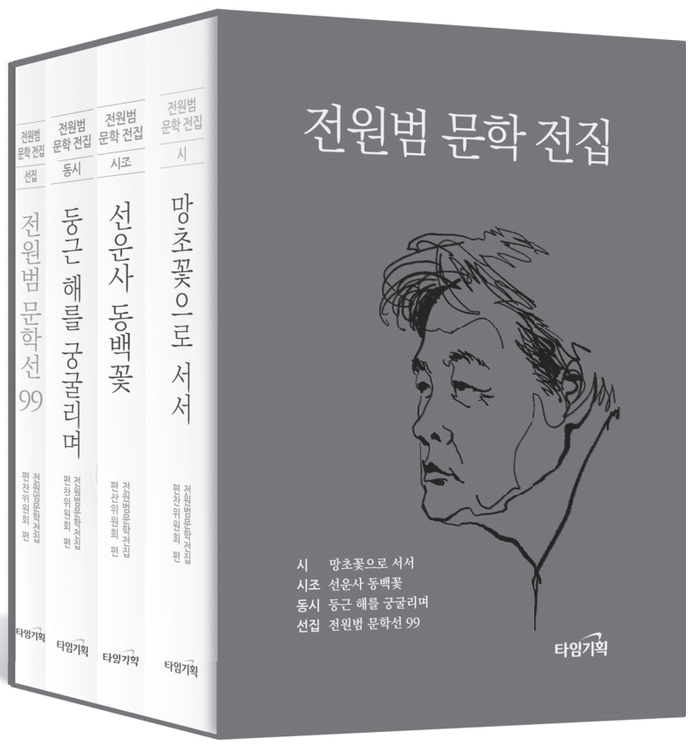
또 양측은 오는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백악관과 재무부는 내달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는 태도를 고수해 주말 내내 협상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며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